

‘익산 김병순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됐다

1920년대 지어진 익산 합라마을 3대 만석꾼의 집 부농 생활·건축양식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가치 높아

익산시 합라면 '익산 김병순 고택'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됐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7호로 지정된 익산 김병순 고택은 익산 합라마을 3대 만석꾼 중 하나로 알려진 김병순(1894-1936)이 1920년대에 지은 집이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근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당시 부농의 생활과 건축양식 특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 보존가치가 높다.

이 고택은 근대기 가옥의 특성인 길과 대지 여건에 맞는 건물 배치,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 내부 복도를 통한 긴밀한 연결, 넓은 후원은 유교적 관습보다 실생활을 반영한 부농주거 특징을 나타낸다.

규모는 현존 전북 고택 중 최대다. 건축 부재의 조각, 문양 등 장식기법도 뛰어나다. 붉은 벽돌과 우리 창호 등 근대기 건축 재료들이 가미돼 있어 건립 당시 시대상도

잘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가옥 공간에 내재한 유교적 질서체계와 배치형식, 의장기법, 건축재료 변화과정을 비교적 잘 표현해 준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경제적 부가 축적돼 새로운 신분계층으로 성장한 부농은 기존의 유교적 규범을 따르면서도 실질 생활을 강조하고 농사와 가사 작업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익산 김병순 고택도 조선 후기 부농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일(一)자형을 기본으로 한 평면 구성과 위계 구분에서는 유교 관습을 따르면서도 실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새 건축양식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가옥 변천사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시 재래식 농기구와 근대식 농기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 297호로 지정된 익산 김병순 고택 중문. (익산시 제공)

이 같이 보관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대의 새로운 농사법과 농기구 발전상도 살펴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해 새로운 신분 계층으로 성장한 부농은 유교적 규범을 따르면서도 농사와 가사

작업의 편리함을 추구했다"며 "김병순 고택은 일자형 평면 구성과 위계 구분 등에는 유교적 관습이 남아있지만, 건축 재료나 의장 기법을 보면 전통가옥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황토현전승일(5월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가운데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15일 정읍시 이평면 일대에서 열린다. 고부봉기 재현행사 모습. (정읍시 제공)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재현행사' 열린다

15일 정읍 6개 면민·청소년 참여 진군행렬·신 사발통문 작성 등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15일 정읍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읍시 이평면 일대에서 펼쳐진다.

고부 봉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1894년 2월 15일에 전봉준 장군과 함께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이다.

이번 행사는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가 주관하고, 이평·고부·덕천·영원·

소성·정우면 등 6개 면민과 청소년이 참여한다.

기념제 1부는 1894년 1월 고부봉기의 서막을 알리는 재현행사로 진행된다. 최초 혁명을 준비했던 예동마을에서 말목장터와 감나무까지 농민군 진군행렬이 이어진다.

2부는 신(新)사발통문 작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지역 내 기관 단체장과 동학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진

행된다.

행사에서는 고부봉기 격문이 낭독된다. 마무리인 3부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이어진다.

박종신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이사장은 "다양한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원년이자,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여서 의미가 깊다"며 "다양한 선양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문화재 화재 등 예방 신재호 고택서 재난대응훈련

고창군이 지역내 산재한 문화재의 화재 등 각종 재난위험 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고창읍 동리로 신재호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에서 문화재분야 재난대응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담뱃불로 인한 고택 화재를 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완료하고, 관광객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이 펼쳐졌다.

앞서 군은 분기별로 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내 문화재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선운사대웅전(보물 제290호) 등 목조건물문화재만 40여곳이 산재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 진입여부 확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작동상태 확인 ▲문화재 주변 산불로 인한 화재예방대책 등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최근 장성군은 상황실에서 '제3기 장성군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의 매력 알리기' 50명의 'SNS 서포터즈' 떴다

장성군 'SNS 서포터즈'가 올해 활동가 구성을 마치고 지역의 숨은 매력 알리기 들어갔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제3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소통 간담회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사진>

50명의 3기 SNS 서포터즈는 내년 2월까지 장성군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일반인 관점에서 장성의 관광명소, 맛집, 축제, 행사, 군정 소식을 직접 취재해 SNS로 전달한다.

장성군이 제작하는 SNS 콘텐츠를 평

가하고 대안 등 의견도 제시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과 작년 황룡강 노란꽃잔치 성공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실시간으로 널리 퍼뜨린 SNS 서포터즈 덕분"이라며 "장성의 매력과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영암군,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영암군은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2019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생을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영암군이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다.

군은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할 경우 점포 인테리어, 제품개발, 마케팅 등 창업지원금 20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사업세부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남원 민속국악원 '토요국악플러스' 16일부터 진행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다양한 전통예술을 무대에 올리는 '토요국악플러스'를 16일 시작해 11월까지 진행한다.

토요국악플러스에서는 민속국악원 단원들이 출연해 민속 음악, 창작 음악, 무용, 판소리, 단막 창작 등을 선사한다.

첫 공연은 희망찬 봄기운을 전해주는 삼도풍물가락, 꽃잎과 물결치는 파도를 형상화한 부채춤, 판소리 심정가 중 '타루비 대목' 등으로 꾸며진다.

전석 무료며, 문의는 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24)로 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소방서 새청사 내년 1월 개청

전북도 소방본부는 순창군 교성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에는 소방서가 없어 그동안 인접한 남원소방서가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대신해왔다.

순창소방서는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신축 소방서는 기존 관공서 건물과 차별화된 친근한 디자인으로 지어지며, 야외에는 힐링 정원 등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